삼성, 첨단산업 거점 구축 속도… AI시대 기술 초격차 지킨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이재용 회장, 새로운 도약 약속
주요 계열사 투자계획·현황 발표
생산공장 가동 시점 조기화 방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이 충청권에 총 14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 패키지 기판, 배터리를 아우르는 첨단산업 생산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생산시설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공장 가동 시점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환영사에서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검사하는 공장이었던 이곳이 앞으로는 AI의 심장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40년 전까지만 해도 민둥산과 비포장도로였던 이곳이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조립하고 최종 공정을 수행하는 첨단 공장으로 성장했다"며 "오늘 착공식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의 의미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강조했다. 이 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역사적 도전"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가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을 비롯해 호남·영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 주요 계열사의 투자 계획과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충청권에 총 6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 사업인 온양캠퍼스 5라인은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후 차세대 HBM 생산을 담당한다. 전 부회장은 "협력사와 함께 온양과 천안을 잇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해 충청권을 세계 최고의 첨단 패키징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계열사별 투자도 이어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아산·천안 지역에 67조원을 투자해 OLED 생산시설 A7 라인을 구축한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8조원을 투입해 AI용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신규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달 착공했으며 2028년 9월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SDI는 천안 사업장에 9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모든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충청권은 물론 호남·영남권 메가프로젝트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협력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 겸 삼성전자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가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냈고, 그 투자가 협력사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AI 시대에 기술 초격차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업체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김 회장은 "2030년까지 협력사들이 약 18조1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만 60여개 기업이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인텔과 AI시대 반도체 혁신 노력"

인텔 AI 서밋 서울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 출범
산업별 AI 솔루션 협력체계 구축



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텔 AI 서밋 서울 2026'에서 발표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인공지능(AI)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1%의 효율 개선도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마커스 로렌스 인텔 중앙 엔지니어링 그룹 부사장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텔 AI 서밋 서울 2026'에서 'AI 시대를 위한 맞춤형 반도체'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AI 연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개별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와 전력·비용 효율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인텔은 AI PC부터 데이터센터, 로보틱스에 이르는 AI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작업 특성에 맞게 조합하는 이기종 컴퓨팅으로 AI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로렌스 부사장은 "AI 시대의 승자는 범용 반도체에 작업을 맞추는 대신 특정 작업에 맞춰 설계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텔은 공동 설계부터 파운드리 공정 이전, 첨단 패키징까지 지원하는 5가지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공개했다. 삼성메디슨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와 오픈비노(OpenVINO)를 활용해 초음파 영상에서 장벽 두께를 자동 측정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다임테크놀로지와는 자율 공장용 참조 아키텍처 개발에 협력한다.

인텔코리아는 국내 23개 기업이 초기 참여사로 함께하는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 출범도 발표했다. 국산 서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별 AI 솔루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AI 시스템의 메모리 구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용량과 성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텔과 함께 혁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라인업 공개

구글 제미나이 탑재… 총 30종 구성

삼성전자가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와 협업해 총 30종의 제품을 선보이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구글, 젠틀몬스터, 워비파커와 협업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Intelligent Eyewear)' 전체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난 5월 구글 I/O와 7월 갤럭시 언팩에서 선보인 4종을 포함해 젠틀몬스터 16종, 워비파커 14종 등 총 30종으로 구성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 탑재된 제미나이는 주변 사물이나 건물에 대한 정보 검색과 외국어 메뉴 번역, 길 안내 등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 질문하고 AI와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일부 연산을 스마트폰과 나눠 처리하는 '스플릿 컴퓨팅(Split Computing)' 구조를 적용했다. 1200만 화소 HDR 카메라와 개방형 스피커 2개, 마이크 4개를 탑재했으



워비파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삼성전자

며 퀄컴의 '스냅드래곤 AR1 1세대' 플랫폼을 사용한다.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9시간, 충전 케이스 사용 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는 오는 12월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정식 출시된다. 미국에서는 젠틀몬스터와 워비파커의 전체 라인업을 판매하며 국내에서는 젠틀몬스터 컬렉션만 선보인다. 사전판매는 이달 12일부터 양사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된다.

국내 소비자는 출시일부터 젠틀몬스터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삼성 강남과 삼성스토어 홍대점 등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국내 출시 가격은 모델에 따라 65만~70만원이다.

/차현정 기자

한화에어로, 육군 소통 확대… 방산 수출 경쟁력 높인다

'상생협력·업무혁신 교류활동' 진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과의 소통을 넓히며 K-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군의 경험이 해외 고객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군,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수출 협력체계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육군본부 과장급 장교 20여 명을 초청해 '육군-방산기업 상생협력 및 업무혁신 교류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본부 과장단은 방산기업의 실무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과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방산기업을 직접 찾았다.

이날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방산시장 현황과 K-방산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대표는 K-방산의 성장 과정과 주요 수출 사례를 소개한 뒤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방산수출 지원정책 발전, 첨단 방산 전략기술 육성, 민·관·군 협력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방산 외교와 군의 운용 경험, 기업의 사업개발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수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군의 노하우와 신뢰는 해외 고객에게 가장 확실한 '성능 보증서'"라며 "국산 무기체계 운용 성과를 주요 레퍼런스로 활용하면 향후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수출 이후 현지 생산, 정비(MRO), 교육훈련까지 연계하는 협력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수출 계약 이후에도 정부 간 협력과 군사교류를 기업 활동과 연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수출로 확보한 생산 기반과 기술력은 다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과의 교류를 넓히고 군에 필요한 첨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해 자주국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내화·내진 H형강 'KS D 3866' 충족

현대제철이 화재와 지진에 함께 견디는 내화·내진 H형강으로 고성능 건축용 강재 시장 선점에 나섰다.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로 복합 재난 대응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개정된 국가표준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충족하며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에서 생산한 내화·내진 H형강 'SHN355FR'이 KS D 3866(건축구조용 열간압연 형강) 규격에 따른 KS 인증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이 규격으로 내화·내진 H형강이 KS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인증의 기준이 된 KS D 3866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7월 개정·고시한 규격이다. 기존 내진용 형강(SHN)에 더해 지진과 화재에 함께 대응하는 항복강도 355~460MPa급 내화·내진 형강(SHN-FR)이 새로 국가표준에 반영됐다.

이번 인증으로 확보한 제조·품질관리 기술을 토대로 현대제철은 강재의 강도 수준과 두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성능과 경제성을 함께 갖춘 제조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